

사람 지칭 합성어의 의미구성에 대한 분석*

석수영**

-차 례-

1. 들머리
2. 연구방법
3. 사람 지칭 합성어의 양상과 의미구성 분석
 - 3.1 동물+눈
 - 3.2 동물+코
 - 3.3 동물+입
 - 3.4 의미구성적 특성
4. 마무리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AKS-2019-R-69). 이 논문의 완성을 위해 유용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상해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전임강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동물+눈·코·입' 구조를 중심으로 사람 지칭 합성어의 양상과 의미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합성어가 형성되는 인지과정, 사람 지칭 합성어의 명명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논문의 결과, 동물의 형태, 성질, 크기, 가치 등 특징에 기반하여 사람 지칭 합성어가 형성되고, 동물의 특성을 빌려 사람의 특성을 묘사하는 사람 지칭 합성어가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눈, 코, 입'이 신체 중 가장 먼저 부각되는 부위로 합성의 예가 풍부한데 이 가운데서 눈>코>입 순으로 합성어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의미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합성어 구성요소 간의 관계는 [사람은 동물이다] 은유이고, 수식어와 핵어는 문자적 의미 또는 환유인 합성어 유형을 확인하였다. 기존 논의와 달리, 하나의 합성어에 두 가지 합성어 유형이 편재되어 있고 문맥에 따라 가변적으로 달라짐을 밝혔다.

주제어 : 사람 지칭 합성어, 의미구성,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 개념적 혼성, 인지

1. 들머리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총명하다(홍우평 역 2012: 321). 인간은 또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는 인지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눈, 코, 입’을 구성요소로 한 합성어 가운데,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referring expression)¹⁾인 사람 지칭 합성어를 중심으로 단어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의미가 창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사람 지칭 합성어의 명명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²⁾ 합성(compounding)은 단어 형성의 한 방식으로 인지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존 개념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언어현상이다(강병창 2013: 126 인용). 신체어는 신체화(embodiment)³⁾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기본층위에 속하는 신체어는 많은 ‘X+ 신체어’ 혹은 ‘신체어+ X’와 같은 형식의 하위층위를 창조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구체화하고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 글은 ‘X+ 신체어’ 형식에 주안점을 두고, X는 ‘동물’, 신체어는 ‘눈, 코, 입’에 한정하여 그 합성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눈, 코, 입’은 우리의 신체 중 가장 먼저 부각되는 부위로, 합성의 예가 풍부하다.

명사들이 서로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언어사용자들은 몇 가지 관계를 선호하는데(홍우평 옮김 2012: 326), 예컨대, 사물은 그 용도를 규정하는 합성어 속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동물·식물은 생긴 모습이 나 특정 장소를 묘사하는 합성어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은 직업이나 성별 혹은 인종을 규정하는 합성어에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1) 김보경(2000: 1)에서는 어떠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하여 선택한 표현을 지칭표현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 글도 같은 맥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2) 세계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일종의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범주화 행위, 즉 인간의 지각, 지식, 태도, 즉 인간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이기동 외 옮김 1999: 19)

3) 신체화는 우리의 감각, 운동, 지각과 같은 신체 작용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양상을 가리키는데, 몸의 작용이 바로 개념화의 본성을 형성한다고 보는 체험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이다(노양진 2013: 108)

이에 이 글에서는 사람 지칭 합성어에 나타나는 ‘동물’은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X를 ‘동물’로 정했다.

그간 학계에서 신체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⁴⁾ 이 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논의로는 신체어를 통하여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의 은유와 환유를 다룬 김보경(2000), 동물 은유에 의한 독일어 사람지칭어를 다룬 진정근(2015)가 있다. 김보영(2000)에서는 신체어의 은유와 환유를 통하여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을 살펴보고, 나아가 은유와 환유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사용자의 인지 과정과 지칭 표현의 생성과정을 밝혔다. ‘동물+눈’ 구조를 살펴보았지만, 대응하는 용례 하나만 제시한 것으로 전반적인 ‘동물+눈’ 합성어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진정근(2015)에서는 동물 은유를 통해 나타나는 독일어 사람지칭어의 어휘 목록을 단순어와 합성어로 분류하여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이러한 어휘들이 보이고 있는 형태론적 특징과 의미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추출한 사람 지칭 합성어의 양상과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과정, 합성의 인지적 경향성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앞선 내용을 간추리고 논의를 마무리한다.

2.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합성어 구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4) 대표적으로 관용구의 관점에서 신체어를 논의한 홍사만(1994), 정희자(2002), 신체어의 의미 확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한 배도용(2002a, 2002b, 2002c, 2003, 2006), 임지룡(2007), 말뭉치언어학에 기초하여 신체어의 의미와 용법을 다룬 김혜연(2010, 2014, 2015)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신체어에 의한 시간 표현을 다룬 吉本一(2003), 신체어 감정 관용 표현 내에서 사용된 서술어의 의미를 연구한 정성미(2008) 등이 있다.

첫째, 의미 탐구에 있어서,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나 마음과 연관된 언어는 인간의 신체적 경험과 분리하여 연구할 수 없다는 체험주의 접근법을 토대로 언어 현상을 연구한다. ‘체험주의(experientialism)’란 우리의 사고가 본질적으로 신체화된 경험에서 유래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언어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화’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지적 해석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⁵⁾ 신체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다른 개념을 표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의미 분석에 참여하는 기제로 개념적 환유와 은유, 개념적 혼성이 있다. 우선,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란 동일한 틀, 영역, 이상적 인지모형 속의 한 개념적 요소나 실체(사물, 사건, 특성), 즉 매체(vehicle)가 다른 개념적 실체(사물, 사건, 특성), 즉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 과정이다(임지룡 외 옮김 2010: 174). 이는 인간의 주의 능력, 참조점 능력이 관여하고 있는데, ‘주의’란 몇 가지 대상 중 하나 또는 소수의 것에다가 의식을 초점화하여 집중하는 심리 작용을 말한다(Y. Tsuji 편 2002, 임지룡 외 옮김 2004: 210).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1) a. 머리가 하얗다.
- b. 붕어눈

(1a)에서 ‘머리’는 [전체가 부분을 대표한다]는 개념적 환유가 작용한다. 곧, ‘머리’가 ‘머리카락’을 대표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환유는 사람 지칭 합성어에도 나타난다. (1b)를 보면, ‘붕어+눈’인 붕어눈에서 ‘붕어’는 ‘붕어의 눈’을 대표하는 것으로 [전체가 부분을 대표한다]는 개념적 환유가 작용한다.

다음으로,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란 유사성을 지각하거나 유사성을 발견하여 유추, 추론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즉, 한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를 ‘근원영역(source domain)’에

5) 임지룡(2008: 39-40)에서 의미의 본질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

서 ‘목표영역(target domain)’으로의 체계적인 인지적 사상(cognitive mapping)으로 정의했는데, 여기서 ‘근원영역’은 우리의 일상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이고, ‘목표영역’은 표현하려는 영역으로서 추상적이고 비물리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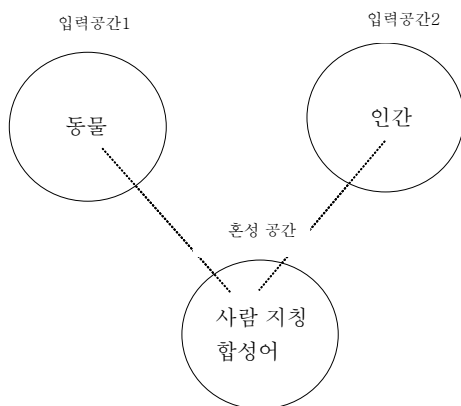
이러한 영역 간의 사상은 ‘인간’ 영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비인간’ 영역을 빌려 표현하는가 하면, ‘비인간’ 영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 영역을 빌려 표현하기도 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2) 아리랑 2호 ‘한반도의 눈’ 되다. (조선일보 2006.7.29.)

예문 (2)는 임지룡(2008: 77-140)에 따르면, 공간 영역인 ‘한반도의 눈’은 ‘아리랑 2호’를 가리키는데, 이는 한반도를 정밀 관측하기 위해 고해상 카메라를 탑재한 인공위성을 가리킨다. ‘한반도의 눈’에서 ‘눈’은 사람의 ‘눈’과 기능의 유사성에 의한 은유적 확장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사람 지칭 합성어는 ‘동물’ 영역과 ‘인간’ 영역 간에 유사성이 인정되어 새로 창조된 것인데, 이 두 영역 간의 사상이 개념적 은유이다.

개념적 혼성 이론은 개념적 은유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인지책략이다. Fauconnier & Turner(1994, 1997)에서는 ‘네 공간 모형’, 즉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두 가지 ‘입력공간(input model)’, ‘충칭공간(generic space)’과 ‘혼성공간(blended space)’으로 구성된다. 이런 혼성모형은 개념적 은유가 필수적으로 환유 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혼성 작용은 은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을 통한 개념 통합의 과정임을 보여준다(이종열 2003: 170-173).

동물 특성을 빌려 사람 지칭 합성어의 혼성 과정을 보면, 혼성은 구체적으로 입력공간 1인 ‘동물’ 영역에서 입력공간 2인 ‘인간’ 영역으로 부분적 사상이 발생하고, 입력공간 1에서 환유가 전제되거나, 입력공간 2에서 환유가 전제된다. 그리고 두 영역으로부터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의미가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혼성모형

셋째, 인지언어학에서 합성은 부분의 총합 이상의 ‘게슈탈트의 원리’에 따른다(이종열 1999: 484 참조).⁶⁾ 그리고 김동환(2013)에서는 합성어의 구조가 문자적 합성어와 비유적 합성어로 구별되고, 비유적 합성어를 크게 은유적 합성어와 환유적 합성어로 분류하였다.

Benczes(2006)에서는 비유적 합성어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합성어에서 두 구성소의 의미 관계는 은유이고 수식어는 환유인 합성어, 구성소들의 의미 관계는 은유이고 핵어는 환유인 합성어, 수식어는 환유이고 핵어는 은유인 합성어, 수식어는 은유이고 핵어는 환유인 합성어이다. 이에 바탕을 두고 이미영(2015)에서는 구성소들의 의미 관계가 환유이고 수식어가 은유인 합성어, 구성소들의 의미 관계가 환유이고 핵어가 은유인 합성어 패턴 두 가지를 추가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의 유형 외에, ‘이중 사상 패턴’도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합성어의 유형은 한 가지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관계가 하나의 합성어에 융합되기도 한다. 즉 하나의 합성어에 두 가지 사상이 존재하는 ‘이중 사상 과정’이 존재한다. 예

6) 합성에 대한 관점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며, 전체는 다시 부분으로 환원된다는 ‘합성성의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ality)’와 전체는 부분의 총합 그 이상이며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게슈탈트의 원리(principle of gestalt)’로 대별할 수 있다.

컨대, 구성 요소들의 의미 관계는 은유이고, 핵어는 문자적 의미인 경우와 구성요소들의 의미 관계는 은유이고, 핵어는 환유인 경우 두 가지가 하나의 합성어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3)(4)와 같다. 7)

- (3) 뱀새눈: 작고 가늘게 찌진 눈.
- (4) 좁쌀눈: 매우 작은 눈. 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3)을 보면 ‘뱀새눈’은 ‘작고 가늘게 찌진 눈’으로 ‘눈’의 하위부류가 되고, (4)의 ‘좁쌀눈’은 하나는 ‘눈’의 하위부류가 되고, 하나는 ‘좁쌀눈’이 부분으로서 전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사전에 제시된 기술만으로 보면 (3)은 한 가지 해석(construal)⁸⁾, (4)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사용 양상을 보면 ‘뱀새눈’도 그런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

- (5) a. 저기, 저 뱀새눈이 오고 있어.
- b. 분노에 치를 떨던 농민들은 고발자인 뱀새눈에게 달려들어 무섭게 무리매를 쳤다.

따라서 ‘동물’의 특성을 빌려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 지칭 합성어는 기술 양상을 ‘어떠한 형태 또는 특성을 지닌 신체 부위, 또는 그런 형태 또는 특성을 지닌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문맥 환경에 따라 가변적으로 달라진다. 이 글에서 살펴본 사람 지칭 합성어는 모두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므로, 3장에서는 구체적인

7) 아래에서는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되도록 합성어를 포함한 문장 용례를 제시하겠지만, 만들어진 합성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 문맥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는 사전에 제시된 일부 기술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8) ‘해석’은 세계, 즉 사물이나 사건의 양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Kövecses 2006, 임지룡·김동환 옮김 2010: 367).

양상과 의미구성 방식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3. 사람 지칭 합성어의 양상과 의미구성 분석⁹⁾

3.1 동물+눈

새로 만들어진 ‘동물+눈’ 사람 지칭 합성어를 보면, 동물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사람을 묘사하는 합성어가 많다.

- (6) a. 그녀가 왜 나를 **가자미눈**을 해서 찌려보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 b. 얼마나 울었는지 시뻘건 두 눈이 **개구리눈**처럼 튀어나왔다.
- c. 아기는 동그란 얼굴에 **붕어눈**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귀여워한다.
- d. **두꺼비눈**
- e. 나를 볼 때의 할아버지는 **붕의눈**이 살짝 처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가 자글자글 끓고 있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가 있었다.
- f. 스스로 흐뭇해져서 범돌네는 작은 **쥐눈**을 깜박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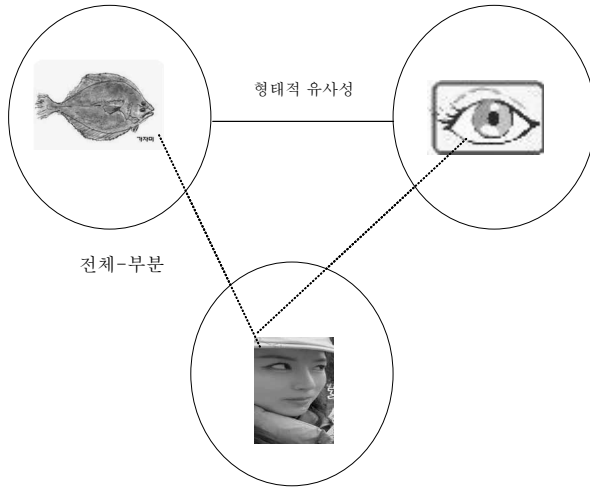
(6a)는 두 눈이 모두 오른쪽에 모여 있는 ‘가자미’의 눈과 ‘사람이 화가 나서 옆으로 흘겨보는 눈’ 간에 형태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합성어가 만들어졌다. 사람의 ‘눈’을 동물의 ‘눈’으로 나타낸 은유적 표현이다. (6b)는 동물 ‘개구리’의 외형적 특징을 통해 ‘둥그렇게 불거져 나온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고 있다. (6c)는 ‘붕어의 눈처럼 생긴 눈, 크고 푹 튀어나온 눈’을 ‘붕어’의 외형적 특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6d-f)도 마찬가지로 모두 동물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합성어가 만들어진 것인데, (6d)는 ‘눈알이 튀어나온 눈’을, (6e)는 ‘붕황의 눈’으로 ‘붕황의 눈같이 가늘고 길며 눈초리가 위로 찌지고 붉은 기운이 있는 눈’을 일컫는다. 모두 동물의 형태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입력

9) 이 글에서 살펴본 용례는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에서 검색하였다. 혼성과정에서 사용된 그림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공간 1에서는 [전체는 부분을 대표한다]는 환유가 작용한다. 예문 (6f)는 ‘얼굴 생김에 비하여서 어울리지 아니하게 몹시 작은 눈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인데, 이 역시 동물 ‘쥐’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사람 지칭 합성어의 의미구성 과정을 ‘가자미눈’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가자미눈’ 혼성과정

<그림 2>를 보면, 입력공간1에서 ‘가자미눈’은 ‘가자미’가 ‘가자미의 눈’을 대신하는 [전체-부분] 환유가 작용하고, ‘가자미의 눈’과 ‘인간의 눈’ 간에 형태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가자미눈’이 형성되었다. 다른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동물+ 눈’ 사람 지칭 합성어도 <그림 2>와 마찬가지로이다.

새로 만들어진 사람 지칭 합성어 가운데, 동물의 성질이나 속성 특성에 기반하여 사람을 묘사하는 합성어가 많다.

- (7) a. 그들은 그렇게 잠에 시달리면서부터야 부대원 전부가 썩은 **동태눈**을 하고 있다고 알잡아 봤던 전입 초기의 자신들을 뉘우쳤다.
- b. **족제비눈**이 되어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오택부의 얼굴에다 지야는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c. 까만 제복을 입은 일본인 역무원이 **독사눈**을 뜨고 나타나서 췌소리를 질렀다.

d. **독수리눈**

e. 임종두는 손톱 끝으로 살짝 긁어 놓은 듯한 그 특유의 **뱀눈**으로 잠시 노려보고는...

f. 약이 오른 아이가 **뱀새눈**이 되어 씩씩거리며 홀겨본다.

g. **새눈**

(7a)는 ‘동태’, 즉 명태가 얼린 것을 동명태 또는 동태라고 하는데, 이는 얼린 명태의 ‘눈’을 통해 흐릿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사람의 눈을 속되게 이르고 있다. 얼려 있는 상태는 당연히 생기가 없어 보이기 마련이고 언어사용자는 이 두 개념 영역 간의 특성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이와 같은 표현을 창조하고 사용하고 있다.

(7b)의 ‘족제비눈’은 ‘작고 매서운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고 있는데 이는 족제비라는 동물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언어사용자가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는 과정이 일상적인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족제비는 외형상 귀도 작고 다리도 짧다. 하지만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으며 성질이 극히 사나워 필요 이상으로 사냥감을 죽이는 매서운 습성이 있다. 사람의 매서운 눈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족제비의 특성을 빌려 합성어가 만들어졌다.

(7c-g)도 마찬가지로, (7c)는 ‘독이 든 뱀’의 특성을 빌려 ‘표독스럽게 생긴 눈’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7d)는 ‘날카롭고 매서운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데, 독수리는 실제로 몸이 둔하여 살아 있는 동물의 포획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중들은 독수리를 용맹스럽고 잔인한 것이라는 인상을 품고 있다.¹⁰⁾ 이러한 성질을 통해 사람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7e)는 ‘독살스럽게 생긴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데, 이 역시 ‘독사눈’과 마찬가지로이다. ‘뱀’은 한국 설화 속에서 주로 인간을 해치려는 사악한 존재로 등장한다.¹¹⁾ (7f)는 ‘작고 가늘게 찌진 눈’을 말하는데, 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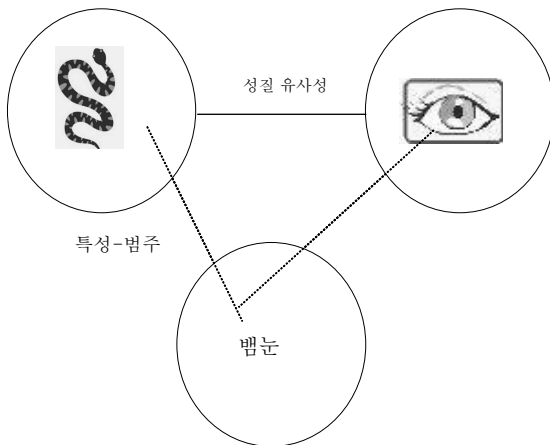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새의 작은 몸집에 초점이 부여되어 비유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 한국 속담에 ‘뱀새는 작아도 알만 잘 낳는다.’를 통해서도 뱀새가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붕어눈’과는 달리, ‘붕어눈’의 경우는 ‘붕어의 눈처럼’인데, 여기에서는 ‘뱀새의 눈처럼’이 아니라, 뱀새의 작은 몸집에 기반을 둔 것으로 속성(성질)에 기반하여 형성된 부류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7g)는 ‘낮에만 잘 보이는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데, 눈은 새의 중요한 감각기관이다. 새의 시력은 굉장히 발달해 있다. 이런 새의 뛰어난 시력을 통해 낮에 잘 보이는 눈을 표현하고 있다.

속성(성질)에 기반하여 형성된 사람 지칭 합성어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두루 존재한다. 인간보다 동물이 위치가 낮아도, 성질이나 기능적인 측면, 또는 속성 측면에서는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없다. 예컨대, 외형적으로 개구리눈처럼 생긴 눈은 싫지만, 새의 눈처럼 시력이 좋은 눈은 좋다. 외형적으로 동물을 닮는 것은 선호하지 않지만, 동물의 어떤 긍정적인 성질이나 속성을 닮는 것은 선호하는 편이다.

성질(속성) 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사람 지칭 합성어의 의미구성 과정을 ‘뱀눈’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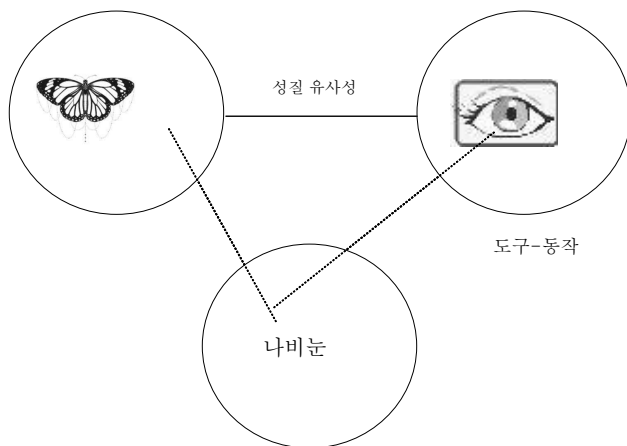


<그림 3> ‘뱀눈’ 혼성과정

<그림 3>을 보면, 입력 공간1에서 ‘뱀눈’은 ‘뱀’이 가진 ‘눈’이 아니라, 뱀의 속성인 ‘독’을 뜻하는 것으로 [동물의 특성이 범주를 대표한다]라는 환유가 작용한다. 뱀의 독이 든 속성과 ‘표독스럽게 생긴 인간의 눈’ 간에 성질 유사성이 인정되어 ‘뱀눈’이 형성되었다. 다른 성질 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동물+눈’ 사람 지칭 합성어도 <그림 3>과 마찬가지로이다.

(8) 나비눈

예문 (8)은 ‘못마땅해서 눈알을 굴려, 보고도 못 본 체하는 눈짓’을 의미하는 이 합성어 중에 ‘눈’은 ‘눈짓’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눈’이라는 ‘도구’가 그 도구로 행하는 ‘동작’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도구로 동작을 대신하다]는 개념적 환유가 작용한 결과이다. 다른 것과 달리 수식어가 아닌 핵어가 환유인 사례이다. 사물을 구분하는 나비의 겹눈 성질 특성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



<그림 4> ‘나비눈’ 혼성과정

<그림 4>를 보면, 입력공간1에서 ‘나비눈’은 ‘나비’가 가진 ‘눈’이 아니라, 나비 결눈의 속성인 ‘사물을 구분하다’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도 못본체하는 특성을 빌려서 나타낸다. 그리고 핵어는 [도구로 동작을 대신한다는]라는 환유가 작용한다.

‘눈’과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 가운데 동물이 구성요소로 나타난 어휘들을 전부 제시하면 (9)와 같다.

(9) 동물의 특성을 빌린 사람지칭어:

가자미눈, 개구리눈, 동태눈, 족제비눈, 나비눈, 독사눈, 독수리눈, 두꺼비눈, 뱀눈, 뱀새눈, 봉의눈, 봉어눈, 쥐눈, 새눈

3.2 동물+코

새로 만들어진 ‘동물+코’ 사람 지칭 합성어를 보면, 동물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사람을 묘사하는 합성어가 많다.

(10) a. 편편하게 내려오던 코가 입 바로 위에까지 와서는 몽톡하게 솟아오른 콧잔등 좌우 쪽으로 **개발코**가 벌룩벌룩하였다.

b. 이마에 반달형 칼자국이 뚜렷한 말상의 얼굴, 그 기다란 **말코**가 실룩거리며 히죽 한 번 웃는 형국이 되며...

c. 그녀의 코는 **매부리코**처럼 아랫부분이 약간 오그라들어 있다.

d. **빈대코**

e. **사자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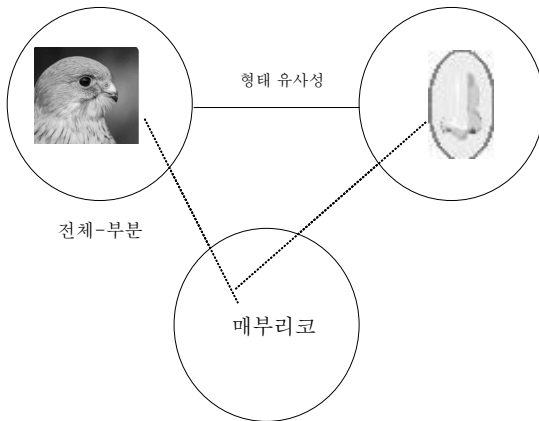
f. 어릴 때는 **돼지코**였는데 커서는 코가 오뚝해졌다.

(10a)의 ‘개발코’는 ‘너부죽하고 몽톡하게 생긴 코’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개의 발처럼 너부죽하고 몽톡하게 생긴 코를 말하는데, ‘개코’가 아닌, ‘개발코’로, 여기에서는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부분인 ‘발’도 부각되어 언어적으로 표상되었다. 입력공간 1의 [전체-부분] 도식 관계에서 ‘전체-부분’이 모두 선택되어 언어적으로 표상되었다. 앞서 살펴본 [전체가 부분을 대신하다]도 [전체-부분] 도식이 전체되어

있다. (10b)는 ‘말의 코’처럼 코끝이 둥글넓적하고 콧구멍이 커서 벌름 벌름하는 특징이 있는 코를 비유적으로 이르며, (10c)는 동물 ‘매’의 ‘부리’와 같이 코끝이 아래로 뾰족하게 숙은 코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개발코’와 마찬가지로 ‘매부리코’도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부분인 ‘부리’가 부각되어 언어적으로 표상되었다.

(10d)도 마찬가지로인데, ‘빈대’의 경우 몸이 둥글납작하다. ‘빈대코’는 ‘납작코’라고도 하는데 ‘콧날이 서지 않고 납작하게 가로퍼진 코, 또는 그런 코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10e)의 ‘사자코’는 ‘사자의 코처럼 벌름하고 넓적하게 생긴 들창코, 또는 그렇게 생긴 코를 가진 사람’을 비유하고, (10f)의 ‘돼지코’는 ‘코에 살집이 있고 코끝이 위로 들려서 콧구멍이 돼지의 코처럼 드러나 보이는 코. 또는 그런 코를 가진 사람’을 비유한다. 모두 동물의 특성을 빌려 사람의 특성을 묘사하는데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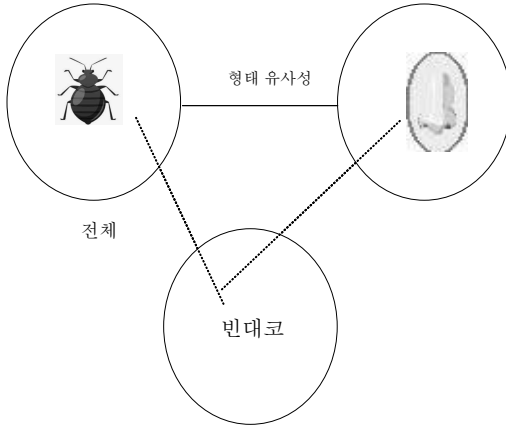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사람 지칭 합성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매부리코’와 ‘빈대코’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매부리코’ 혼성과정

<그림 5>를 보면, 입력공간1에서 ‘매의 부리’, 입력공간 2에서 ‘코’ 사이에 형태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매부리코’가 형성되었다. 형태적 유

사성에 기반한 ‘사자코’, 즉 ‘사자의 코’와 ‘인간의 코’와는 달리, ‘매부리코’는 ‘매의 부리’이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부리’가 모두 합성어 형성에 고착되었다. ‘개발코’도 여기에 속한다.



<그림 6> ‘빈대코’ 혼성과정

<그림 6>을 보면, ‘빈대의 편평한 몸’과 인간의 ‘납작하게 가로펴진 코’ 간의 유사성이 포착되어 합성어가 형성되었다. ‘매부리코’와는 달리 입력공간 1에서는 [전체-부분] 도식 관계에서 ‘전체’가 선택되어 ‘동물 전체+ 코’ 형식으로 합성어가 만들어졌다.

새로 만들어진 사람 지칭 합성어 가운데 속성(성질)에 기반하여 사람을 묘사하는 합성어가 있다.

(11) 냄새로 술의 종류를 분간해 내니 **개코**가 따로 없다.

(11)은 ‘냄새를 잘 맡는 코나 그런 코를 지닌 사람’을 일컫는다. 개의 냄새를 잘 맡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개의 후각적인 특성을 통해 냄새를 잘 맡는 코 또는 그런 코를 지닌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전에는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지만, 문맥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루 존재한다. 이러한 ‘개코’는 더 나아가 범죄 집

단의 은어로 ‘형사’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는 사건의 무언가를 잘 나타낸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코’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 가운데 동물이 구성요소로 나타난 어휘들을 모두 제시하면 (12)와 같다.

(12) 동물의 특성을 빌린 사람 지칭어:

개코, 개발코, 돼지코, 말코, 매부리코, 빈대코, 사자코

3.3 동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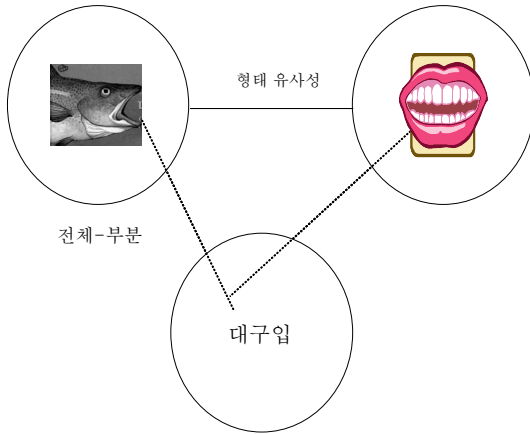
새로 만들어진 ‘동물+입’ 사람 지칭 합성어를 보면, 동물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사람을 묘사하는 합성어가 많다.

(13) a. 입이 크다고 **대구입**이라고 놀린다.

b. 막둥이도 그들의 틈에 끼어 앉아서 **메기입**을 해 벌리고 읽으면서 그들을 따라 웃었다.

(13)에서 (13a) ‘대구입’은 ‘입이 유달리 큰 사람이나 유달리 큰 입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 ‘대구’는 몸집이 넓적하고 입도 크다. 한자 ‘大口’에서도 엿볼 수 있다. (13b)는 입아귀가 길게 찌져 넓게 생긴 입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인데, 모두 동물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 메기 몸통의 앞부분은 원통형이나 뒤로 갈수록 옆으로 납작해지며 가늘어 지는데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것이다.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사람 지칭 합성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대구입’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대구입’의 혼성과정

<그림 7>을 보면, 입력공간1에서 ‘대구입’은 ‘대구’가 대구의 ‘큰 입’을 대신하는 환유가 작용하고, ‘대구의 입’과 ‘인간의 입’ 간에 ‘크다’는 형태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대구입’이 형성되었다. 반면, ‘메기입’은 입력공간 1에서 [전체-부분] 도식 관계에서 ‘동물 전체’인 ‘메기’ 크기가 합성어 형성에 투사되어 ‘메기입’ 의미가 구성되었다.

‘입’과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 가운데 동물이 구성요소로 나타난 어휘들을 제시하면 (14)와 같다.

(14) 동물의 특성을 빌린 사람지칭어: 대구입, 메기입

요컨대, 핵어가 ‘입’인 사람 지칭어의 경우, 동물의 특성을 빌린 것은 모두 동물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였고, 모두 놀림조를 이르는 말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람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동물의 특성을 빌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표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사람 지칭 합성어의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3.4 의미구성적 특성

이상 살펴본 내용을 간추리고 의미구성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눈, 코, 입’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람 지칭 합성어의 경우, 만들어진 합성어의 수는 차례대로 ‘동물+눈’(14)> ‘동물+코’(7)> ‘동물+입’(2) 순으로 ‘동물+눈’이 가장 많이 생산된다. ‘눈’과 ‘코’가 형태적 특성, 성질 특성에 기인하는 데 반해, ‘입’의 경우는 형태적 특성에만 기인하여 합성어가 형성되었다.

둘째, 진정근(2015)에서는 독일어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밝혀진 명명원리 18 가지¹²⁾를 소개하고, 동물은유에 의한 독일어 사람지칭어의 명명원리로는 장소, 현상, 색, 형태 및 생김새, 음향, 후각, 규모 및 크기, 행위 행태, 가치평가에 따른 명명원리를 들 수 있다고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사람 지칭 합성어는 형태(생김새), 성질, 크기, 가치평가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개념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는 과정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고, 독일어에서 동물 은유에 의한 사람지칭 합성어와 한국어에서 동물 은유에 의한 사람 지칭 합성어가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인지과정이 유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인간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특성을 빌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동물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이 인간의 삶,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차원에서 동물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다.

넷째, 동물의 특성을 빌린 합성어는 부정적인 표현에 많이 이용되는 경향성이 있다. 특히 형태적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합성어는 더 더욱 그렇다. 이는 인간보다 동물을 더 낮은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인

12) 기술, 목적, 재료, 장소, 시기, 현상, 원인, 행위 행태, 식품영양, 소비자관련, 저작자 발명자 발견자, 실행자, 수신자, 지칭대상, 작용-징후, 실행의 조건, 용기 및 보관종류, 가치평가에 따른 명명원리이다. 그 가운데 현상에 따른 원리로는 색, 형태 및 생김새, 규모 및 크기, 음향, 미각, 후각, 촉각, 농도 및 밀도, 나이 및 숙성도, 기타 외형적 특성 등으로 하위분류된다(진정근 2015: 262).

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성이나 성질에 있어서는 ‘새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것으로, ‘개구리눈’은 부정적인 것으로 속성이나 성질에 기반한 것은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에 두루 사용된다.

다음으로 의미구성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성어 구성요소 간의 관계는 은유이다. 여기에는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작용한 것이다.

둘째, 의미구성을 합성어의 유형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a) 수식어는 환유이고, 핵어는 문자적 의미이다. 이 관계에는 세 가지 세부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는 부분을 대신하다], 다른 하나는 [특성이 범주를 대신하다], 다른 하나는 [전체-부분] 도식 관계에서 [전체], 또는 [전체+부분]이 합성어에 나타나는 관계이다. 차례대로 [전체는 부분을 대신하다]가 입력공간1에서 작용하는 예로는 ‘가자미눈, 개구리눈, 봉어눈, 두꺼비눈, 봉의눈, 쥐눈, 돼지코, 말코, 사자코, 대구입’이 여기에 속한다. [특성이 범주를 대신하다]가 입력공간1에서 작용하는 합성어로는 ‘동태눈, 족제비눈, 독사눈, 뱀눈, 뱀새눈, 새눈, 개코’가 여기에 속한다. [전체-부분] 도식 관계에서 [전체]를 선택한 경우는 ‘빈대코, 메기입’이 여기에 속한다. [전체-부분] 도식 관계에서 도식 전체가 합성어에 참여하는 유형도 있다. ‘개발코, 매부리코’가 여기에 속한다.

(b) 수식어는 환유이고, 핵어는 환유이다. 여기에 핵어는 [도구가 동작을 대신하다]라는 환유가 작용한다. ‘나비눈’이 여기에 속한다. ‘나비눈’이 여기에 속한다.

(c) 이중 사상 패턴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뱀새눈’의 경우,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식어는 환유이고, 핵어는 문자적 의미이다’이고, 문맥을 고려하면 ‘수식어는 환유이고, 핵어는 환유이다’. 이러한 합성어로는 ‘개코’가 있다. 이처럼 하나의 합성어에 나타나는 사상이 두 가지가 융합적으로 내포되는 특징이 있다.

4. 마무리

이 글은 ‘동물+ 눈, 코, 입’ 구조를 중심으로 사람 지칭 합성어의 양상과 의미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합성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사람 지칭 합성어의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구성 특성을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동물은 사람이 생긴 모습이나 성격을 묘사하는 합성어에 등장하는 경향이 있고 동물의 형태적 특성, 성질과 속성, 가치평가 특성에 기인하여 인간을 묘사할 때 빌려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존 합성어 논의에서 다루지 않은 이중사상 패턴을 확인하였다. 즉, 문맥에 따라 ‘수식어는 환유이고, 핵어는 문자적 의미이다’와 ‘수식어는 환유이고, 핵어는 환유이다’가 하나의 합성에 나타나는 이중 사상이 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특성을 밝혔다. 그리고 ‘수식어는 환유이고, 핵어는 문자적 의미이다’ 관계에서 세 가지 관계로 세분화하였는데, [전체가 부분을 대신하다], [특성이 범주를 대신하다], [전체 부분] 도식에서 [전체] 또는 [전체+부분]이 부각되어 합성어 언어에 표상된 것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사람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동물 특성을 빌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표현하는 인지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글은 사람 지칭 합성어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묘사하는 합성어에 나타나지만, 사람 지칭 합성어뿐만 아니라, 동물의 특성을 빌린 합성어는 풍부하고 언어권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나 사회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성이 짙다. 사람 지칭 합성어의 범언어적 연구뿐만 아니라, 동물의 특성을 빌린 합성어의 범언어적 연구 또한 유의미하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nalysis on Semantic Composition of Personal Compounds : take “animal+ eye, nose, or mouth” construction as examples

Xi, Xiuying(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morphological and semantic structure of structures as "animals+ eyes, nose, or mouth" and further to show the naming features of personal compounds and cognitive process of its forming. The results shows that personal compounds ar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animal features, such as shape, nature, size and value, and thus these kind of personal compounds are abundant in describing via animal features.

Key words : personal compounds; Semantic Composition; Conceptual Metaphor; Conceptual Metonymy; Conceptual Composition

[참고문헌]

■ 단행본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2013, 박이정.
 노양진, 『몸이 철학을 말하다』, 2013, 서광사.
 배도용, 『우리말 의미 확장 연구』, 2002a, 한국문화사.
 정희자, 『담화와 비유어』, 2002, 한신문화사.
 홍사만, 『국어 의미 분석론』, 1994/2008, 한국문화사.
 Aitchison, J., Word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2003, Oxford: Basil Blackwell. (홍우평 옮김, 『언어와 마음』, 2012, 역락.)
 Benczes, R. Creative Compounding in English: The Semantics of Metaphorical and Metonymical Noun Noun Combinations, 200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김동환·이미영 옮김, 『은유적·환유적 합성어의 의미론』, 2014, 로고스라임.)
 Dirven, R. & M. Verspoor,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1999/2004, Amsterdam: JohnBenjamins. (이기동 외 옮김, 『언어와 언어학: 인지적 탐색』, 1999, 한국문화사.)
 Evans, V. & M. Green,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2006,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기초』, 2008, 한국문화사.)
 Heine, B.,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199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övecses, Z., Language, Mind, and Culture: A Practical Introduction, 200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임지룡·김동환 옮김, 『언어·마음·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2010, 역락.)
 Riemer, N., Introducing Semantics, 201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임지룡·윤희수 옮김, 『의미론의 길잡이』, 2013, 한국문화사.)

■ 논문 및 기타 자료

吉本一, 「신체어에 의한 시간 표현」,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101-130면.
 김보경, 「한국어 신체어의 은유와 환유」, 2000,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해연, 「한국어 코퍼스에 나타난 ‘얼굴’의 은유적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언어와 언어학』 49, 2010, 23-45면.

- 김해연, 「국어 문어 말뭉치 분석을 통한 ‘머리’와 ‘꼬리’의 의미 비교 연구」, 『한국어 의 미학』 44, 2014, 59-88면.
- 류은중, 「신체어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986, 68-74면.
- 배도용, 「다의어 ‘눈’의 의미 확장 연구」, 『담화와 인지』 9(1), 2002b, 51-76면.
- 배도용, 「우리말 ‘입’의 의미 확장 연구」, 『배달말』 31, 2002c, 79-98면.
- 배도용, 「우리말 ‘얼굴’의 의미 확장과 개념망」, 『현대문법연구』 31, 2003, 137-156 면.
- 배도용, 「우리말 ‘코’의 의미 확장과 개념망」, 『비교문화연구』 18, 2006, 163-182면.
- 우형식, 「신체어의 의미론: 어휘의미론적 분석 시도」, 『연세어문학』 21, 1988, 291-319면.
- 이기동, 「낱말의 의미와 범주화」, 『東方學志』 50, 1986, 289-332면.
- 이미영, 「은유-환유 상호작용에 기반한 비유적 합성어의 의미구성 탐색」, 『영어영문 학』 20-2, 2015, 111-131면.
- 이종열, 「정신공간을 통한 합성어의 인지적 의미해석」, 『언어과학연구』 16, 1999, 483-504면.
- 임지룡, 「원형이론과 의미의 범주화」, 『국어학』 23, 1993, 41-68면.
- 임지룡, 「신체화에 기초한 의미 확장의 특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40, 2007, 1-31 면.
- 정희자, 「관용어에 나타난 신체어의 의미 확장」, 『외대논총』 24, 2002, 355-378면.
- 진정근, 「동물은유에 의한 독일어 사람지칭어: 어휘의 목록, 특성, 형성 원리」, 『독일어 문학』 71, 2015, 245-267면.